

올 전남 5개 학교 폐교...18개 학교 학생 '0명'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심각... 31개 학교는 신입생 1명도 없어 전남교육청, 초·중·중·고 통합운영학교 6곳 신규 지정 '주목'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와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학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폐교 활용 방안과 함께 학생 수가 적거나 없는 학교들을 통합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학교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남지역에선 3월1일 기준으로 5개 학교(초등학교 3곳·분교 1곳, 중학교 1곳)가 문을 닫았다. 전남지역은 분교를 중심으로 해마다 학교 3~4곳이 문을 닫고 있는데 2000년 이후 200곳에 달하는 학교가 폐교한 셈이다. 올해 입학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8개 분교 31개

분교장으로 늘었다.

학생수 30명 이하로 통합(폐교) 대상이 되는 학교도 189곳(초등학교 분교 72곳, 분교장 43곳 등 115곳, 중학교 분교 65곳, 분교장 5곳 등 70곳, 고등학교 4곳)에 달하는 등 전남지역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하다. 특히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 폐교를 앞두고 있는 휴교 중인 학교도 현재 18곳이나 된다.

문제는 2023학년도부터 향후 5년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진다.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도미노 폐교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전남지역 통합 대상 학교가 전체(868개 학교)의 21.8%에 달하지만 학부모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폐교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수 '0명'인 휴교가 3년간 지속되면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 폐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초·중이나 중·고간 통합하는 통합운영학교가 지역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영암 장천초(6개 학급 29명)와 영암 서호중(2개 학급 7명), 나주 매성중(9개 학급 200명)과 매성고(5개 학급 87명)가 통합 캠퍼스를 구축,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 제도개선과 미래

형 통합운영학교 신규학교 지정 등 기반조성을 올해까지 마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연계해 맞춤형 개별학습과 생태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혁신을 통해 미래학교 모델로서 입지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운영학교 13곳 외에 장흥 용산초와 용산중, 완도 청산초와 청산중(이상 2023년 개시) 등 6곳을 신규로 지정해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로 기구어 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물리적 통합에만 그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기존 통합운영학교 문제점을 개선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공로자회 설립 등기 공법단체로 공식 출범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공로자회)가 설립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로 기존에 (사)5·18구속부상자회(이하 5·18구속부상자회)에 속해 있었다.

공로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사)5·18구속부상자회는 관련 법에 따라 이날부로 자동 해산된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권을 비롯해 구속부상자회가 갖고 있던 권한과 의무 일체는 공로자회가 승계받는다.

공로자회 초대회장을 맡게 된 임중수 회장은 "정신적 피해배상과 처우개선 법안 개정 등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5월 정신 선양과 계승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5·18 진상규명위, 사직공원 헬기사격 부산물 조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9일 오전 광주 남구 사직공원 일대에서 80년 5·18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에 따라 헬기사격 부산물 탐색조사를 벌였다. 진상규명위는 다음주까지 광주천 부동교 일원, 광주공원, 사직공원, 조선대 절토지, 남평 한두재 일대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 개설 추진

민·관·학 상생 교통체증 해소 왕복 2차로 ... 4월 1일 착공

광주 동구가 지산 나들목 진출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오는 4월 1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우회도로 사업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2억 6000만원이 투입되며 조선대 교내를 관통하는 연장 545m·폭 10m의 왕복2차로 개설 공사이다.

이 사업은 남문로 일대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로 인해 주변 지역 교통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산나들목 진출로 개통 시 지산동 주요 관문 도로인 지호로의 교통체증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는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동구는 그동안 편도 1차선인 지호로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해부터 조선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도로개설 부지와 예산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통행권 확보를 위해 조선대에서 교내 부지(5,303㎡)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총사업비 중 50%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동구 관계자는 "조선대의 적극적인 협력과 주민들의 관심, 적극 행정 덕분에 '민·관·학 협치 상생모델' 구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이 복지이고 경제'는 신념으로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스타트업 센터, 제2기 입주기업 모집

광주 서구가 오는 4월 14일까지 제2기 서구 스타트업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4개 이내의 입주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기업은 독립된 입주 사무실과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며 실비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구는 입주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멘토링과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 스타트업 센터는 창업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 스튜디오,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 다양한 연계 사업 및 지원을 강구하고 있으니 많은 기업가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스타트업 센터는 지난해 5월 31일 농성역에 개소한 이후 제1기 5개 입주기업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들 입주기업 중 4개 기업은 올해 졸업하고 1개 기업은 실적평가를 통해 입주를 연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앞장선다

국어진흥조례 개정·도민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정책

전남도가 올바른 국어문화를 조성하고, 알기 쉽고 쓰기 쉬운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공언어 개선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오는 4월부터 목포대 국어문화원과 협력해 공공 문서 등의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외래어 등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순화하기 위해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국어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공문서 등 언어 사용 시 일제 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8월에는 주민과 공무원 456명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인식 및 개선' 등에 관한 설문조사도 했다. 설

문을 통해 공공언어 개선 과정에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확산'을 주제로 '2021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그 후속조치로 도 누리집에 공공언어 개선 제안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도민이 직접 공공언어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청사 'A-F주차장' 명칭을 '정문주차장, 열린숲주차장' 등 알기 쉬운 한글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 외에 공무원과 주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능력시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거문도+백도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